

영광군 석달만에 또 '생활쓰레기 대란'

환경센터 폐쇄·주민 이주대책 없어 홍농읍 주민들, 반입 쓰레기 차단 10일째 쓰레기 수거 안돼 주택가·도로변 악취·환경오염

영광지역 생활쓰레기 대란이 재발했다. 지난 9월 추석 명절 쓰레기대란 이후 3개월 만이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지역 생활쓰레기 수거가 10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 및 주택가,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수거되지 않아 곳곳에 방치돼 있고, 일반쓰레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일부만 수거돼 이미 사용 정지된 매립장에 임시 야적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쓰레기 반입을 막았던 홍농읍 주민들이 또 다시 환경관리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를 차단하면서다. 환경관리센터 폐쇄와 주민 집단이주를 요구했던 주민들은 영광군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자 쓰레기 반입을 다시 막은 것이다. 지역주민대책위와 영광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100여명은 최근 군청 앞에서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병규 주민대책위원장은 "악취와 침출수 배출을 10년 넘게 참아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영광군과 군의회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쓰레기는 전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매일 37.5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소각 16t, 매립 19.5t, 재활용 1t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상면 매립장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에 한계가 있어 답답하다"며 "홍농 환경관리센터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지역 상가와 주택가, 도로변 곳곳에 생활쓰레기가 방치돼 악취와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최은영 영광군의회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광군의회의 최은영(사진) 의장이 지난 22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활동 공로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최 의장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긴 장마로 인해 고통받는 군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다. 재선 의원인 최 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최 의장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2025년까지 1631억 투입 '진도읍 리모델링'

진도군, SOC 종합개발사업 추진 경제 활성화·주민 생활편의 기대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631억원을 투입해 진도읍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종합개발사업은 ▲진도전 정비(481억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15억원) ▲아리랑 거리 조성(100억원) ▲LPG 배관망 지원(27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116억원) 등 총 19건이다. 주요 사업들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행되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한다. 진도군은 지난해에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옛 우체국 부지가 선정돼 64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115억원을 확보해 진도읍 도시재생 활성화와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 전통·문화 예술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 사업에도 100억원이 투입된다. '아리랑 Good(굿)거리 조성'은 2022년까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진도 조급 시장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장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 아리랑 Good(굿) 공원 조성, Good(굿)

갤러리 콘서트 개발, 조급시장 청년 창업물 등을 개설한다. 오는 2025년까지 60억원을 들여 낙후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한다. 진도군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 진도읍 남문로 일원 상가를 대상으로 상권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역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진도읍 일대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81억원을 투입, '진도읍 해방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교량 재가설(3개소), 호안정비(길이 4.4km), 하천부지·고수부지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다. 이밖에 진도읍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6억원을 투입한다. 2023년까지 진도읍 일원의 군강공원-노인복지관, 읍파출소-옥주빌라-옛 문화원-향교, 사정리 일원, 북산리 일원에 5개 노선을 완료할 예정이 다.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2900세대 가스 공급을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민선 7기 진도군의 핵심 가치는 군민의 행복과 진도군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교통, 안전, 공원, 문화, 콘텐츠 등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의 실생활 만족도가 올라가도록 진도읍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완도군, 코로나 방지 낚시어선 입출항 통제

30일까지...세번째 행정명령



완도군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간 낚시어선 조업 금지에 따른 입출항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낚시어선 조업금지에 따른 입출항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이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타 지역 확진자 방류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완도군은 앞서 지난 3·4월과 9월에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낚시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금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옛 전통시장에 보건소 새로 짓는다

250억 투입 2022년 준공 예정 8개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탈바꿈

무안군은 무안읍 옛 전통시장 부지에 25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조감도>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축 보건소는 2020~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곳에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해 군민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정이다. 보건소 주차장은 당초 지하 1층으로 계획했으나 주차공간 부족을 우려해 군비 91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 2층, 160면 규모로 확대한다. 또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 보강을 위해 2021년까지 8개 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탈바꿈한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건강증진실이 확보돼 요가·댄스·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고 보건교육 장비, 체지방측정기와 같은 자가 건강관리 장비를 보강한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방문보건간호사를 보건지소에 배치, 응급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축 보건소에 최첨단 보건 의료장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축 보건소가 준공되고 장비가 확충되면 군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해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p>문흥본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 264-4150</p>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